



보도	2026.3.6.(금) 조건	배포	2026.3.5.(목)		
담당부서	자산운용감독국	책임자	국 장	유석호	(02-3145-6700)
	자산운용제도팀	담당자	팀 장	류지웅	(02-3145-6717)
	소비자피해예방국	책임자	선임국장	임권순	(02-3145-8220)
	피해예방2팀	담당자	팀 장	심여희	(02-3145-8235)

ETF 광고 및 관련 SNS 콘텐츠를 볼 때 투자위험, 총보수 등 5가지 체크 포인트를 항상 기억하세요.

주요 내용

□ 투자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ETF의 광고 및 SNS 콘텐츠 현황을 살펴보고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사례별로 안내드립니다.

✓ Check ETF도 원금 손실이 될 수 있는 **'투자상품'**임을 알고 계신가요?

□ **(주요사례)** 만기매칭형 ETF, "예금만큼 안전하다"고 표현

⇒ ETF는 예금이 아니며 언제든지 투자 원금 손실 가능

✓ Check 광고에서 강조한 장점 외에 **'위험 요인'**도 함께 확인하셨나요?

□ **(주요사례)** 환노출(Unhedged) 구조의 해외주식형 ETF, "달러 노출 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라며 표현

⇒ 환노출형 상품은 환율이 하락할 경우, 언제든지 환차손 발생 가능

✓ Check 광고상 수익률을 볼 때 **'대상기간'**을 확인하셨나요?

□ **(주요사례)** 커버드콜 ETF, 마치 매달 7% 수익이 나는 것처럼 표현

⇒ 사전에 약정된 확정 분배율이 아니며, 시세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

✓ Check **'최저', '최초'** 문구에만 현혹되어 투자하지 않으셨나요?

□ **(주요사례)** "국내 유일 ○○산업 대표 ETF"라고 표현했으나, 동일 산업 ETF가 이미 상장되어 거래 중임

⇒ 최저 보수, 최초 출시가 수익성이나 안정성을 담보하지 않음을 유의

✓ Check 광고상 보수 외에 **'수수료'**가 더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주요사례)** "보수 0.00%"대 라고 홍보하지만, 운용보수 등 일부 항목만 강조한 것이며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기타 비용은 누락

⇒ ETF는 총보수 외에도 기타 비용과 증권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 가능

I. 검토 배경

- ETF가 국민의 대표적인 자산 형성 수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국내 ETF 시장은 최근 4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 (시장규모) 국내 ETF 순자산은 297.2조원('25.12월말 기준)으로 최근 4년간 약 4배 증가 ('21.) 74.0조원 → ('22.) 78.5조원 → ('23.) 121.1조원 → ('24.) 173.2조원 → ('25.) 297.2조원
 - (종목수) 국내 상장 ETF는 총 1,058개('25.12월말 기준)로 최근 4년간 약 2배 증가 ('21.) 533개 → ('22.) 666개 → ('23.) 812개 → ('24.) 935개 → ('25.) 1,058개
- 이러한 과정에서 운용사 간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설명이 미흡한 광고 및 SNS 콘텐츠*가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 * 핀플루언서 등을 통한 ETF 홍보 등
- ➔ 이에 금융감독원은 합리적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투자자가 ETF 광고를 볼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안내합니다.

II. 투자자 유의사항

1 ETF도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임을 기억하세요.

- (주의 유형)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은행 예금과 동일하게 안정적인 이자가 지급되는 것처럼 강조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
 - (사례 ①) 만기매칭형 ETF*를 홍보하며, “예금만큼 안전한데 수익률 높은 만기 채권 ETF 부상” 이라고 표현
 - * 상품 자체에 만기가 설정되어 있어, 편입채권의 만기와 ETF의 만기를 일치시켜 만기 보유시 투자 시점의 만기수익률(YTM) 실현을 지향하는 상품
 - (사례 ②) 목표 분배율이 연 10%인 ETF를 홍보하며, “1억을 넣으면 월 150만원씩 따박 따박” 이라고 표현*

⇒ ETF는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언제든지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ip! 분배금은 ETF의 기초자산인 주식·채권의 배당·이자 등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된 분배금만큼 ETF 순자산은 감소하고, 기초자산 가격 하락 시에는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광고에서 강조한 장점뿐 아니라, 상품 특성상 수반되는 주요 위험 요인도 함께 확인하세요.

- (주의 유형) 금융상품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은 간과한 채 특정 시장 상황에서의 이점만 부각한 광고
 - (사례 ③) 환노출(Unhedged) 구조의 해외주식형 ETF를 홍보하며, “달리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라며 환율 추세와 상관 없이 항상 수익에 유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

⇒ 환노출형 상품은 주식(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해도, 환율이 하락할 경우,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손으로 인해 전체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 가능합니다.

Tip! 미래 환율 추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환차익’을 강조 하더라도 반대로 ‘환차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 (사례 ④) 금(金) 현물 ETF를 홍보하며, “선물보다 현물 투자가 더 효율적”, “현물이 5%p 더 높다” “선물 ETF 투자와 달리 롤오버 비용이 없어 수익률이 훨씬 높다”고 표현

⇒ 특정 운용 방식의 우수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각 상품별 장단점에 대한 투자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Tip! 현물·선물 ETF는 상품 간 우열이 아니라, 상품구조가 다른 투자 전략입니다. 투자에 앞서 각 상품별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 현물형은 보관비용, 선물형은 롤오버에 따른 추가 손익 등

3 광고상 수익률은 특정 기간의 수익률일 뿐입니다.

- (주의 유형) 특정 기간의 양호한 성과가 해당 ETF의 전체 성과인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 (사례 ⑤) 커버드콜 ETF*를 홍보하며, 시장 변동성이 커 수익이 일시적으로 높았던 특정 기간 만을 근거로 “일별(Daily) 옵션 프리미엄(매도대가)이 월별(Monthly) 옵션 대비 몇 배 높다”고 표현
 - * 기초자산(주식, 채권)을 보유하면서 관련 콜옵션을 매도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며, 옵션 매도주기(일별·주별·월별 등)에 따라 수익 수준·분배 흐름이 상이
 - (사례 ⑥) 커버드콜 ETF를 홍보하며, “△△지수 타겟 7%* 목표 위클리 커버드콜 추종” 표현과 “월말 배당” 표현을 가까이 배치하여 마치 매달 7% 수익이 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도록 표현
 - * 운용사가 제시하는 연간 목표 분배율이며, 사전에 약정된 확정 분배율이 아님

⇒ 단기 요인에 따른 일시적 성과를 과도하게 부각함으로써, 장기 성과나 변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투자 결정을 유도할 우려

Tip! 광고에서 제시된 ‘목표수익률’ 또는 ‘성과 수치’를 볼 때는 반드시 수익률의 기간 단위(월 또는 연간 기준)를 확인하세요.

4 ‘최저’, ‘최초’ 문구에만 현혹되어 투자하지 마세요.

- (주의 유형)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최초’, ‘압도적 1위’, ‘최저 변동성’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타사 상품보다 월등히 우수한 것처럼 광고
 - (사례 ⑦) 특정 산업지수를 추종하는 테마형 ETF를 “국내 유일 ○○산업 대표 ETF”라고 표현했으나, 이미 동일 산업 ETF가 상장되어 있거나, 주요 투자종목도 상당 부분 겹치는 경우

⇒ ‘업계 최저’, ‘국내 최초’라는 표현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왜곡할 수 있으며, 상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Tip! ‘최저’ ‘최초’ 등의 표현이 등장하면 금융투자협회 공시 등 객관적인 비교 자료를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5 광고상 보수 외에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 (주의 유형) 운용보수 위주의 편향된 정보 제공 및 기타·증권 거래비용 기재 누락 등 실질 투자비용 안내가 미흡한 광고
 - (사례 ⑧) “국내 최저 보수”라고 표현하면서, 실제로는 총보수만 낮을 뿐 기타비용을 합친 합성총보수(TER*)는 타사보다 높은 경우
 - * Total Expense Ratio: 총보수(운용, 판매, 수탁, 사무관리) + 기타 비용(지수사용료 등)
 - (사례 ⑨) “총보수 0.00%”대 라고 홍보하지만, 이는 운용보수 등 일부 항목만 강조한 것이며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기타 비용은 누락
 - (사례 ⑩) 해외 상장 ETF를 담은 재간접 ETF를 홍보하며, 재간접 ETF의 직접 보수만 강조하고, 해외 ETF 보수 등 실질 비용은 누락

⇒ ETF는 총보수 외에도 기타 비용과 증권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Tip! 광고상의 보수(Fee)와 비용(Cost)은 다릅니다.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실질 지불비용'이 얼마인지 투자설명서*를 꼭 확인하세요.

*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간이투자설명서) [요약정보] 투자비용

III.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ETF 광고가 투자자에게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적절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도움이 되는 유의사항을 지속 안내하여 건전한 ETF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구 분	정보 확인 경로
<p>기준가(NA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data.krx.co.kr) → '기본통계' → '증권상품(ETF)' → '개별종목 시세 추이' ■ 각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상품별 '기준가' 항목)
<p>분배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or.kr) → 'ETF' → '권리행사정보' → '분배금 지급현황' ■ 각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상품별 '분배금 현황')
<p>합성총보수(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 '펀드 공시' → '펀드 보수 및 비용' → '펀드별 보수비용 비교'
<p>추적오차·과리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data.krx.co.kr) → '기본통계' → '증권상품(ETF)' → '세부안내(추적오차율 추이, 과리율 추이)'
<p>투자설명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펀드 공시' ■ 각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상품별 '투자설명서')
<p>자산구성내역(PD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data.krx.co.kr) → '기본통계' → '증권상품(ETF)' → 'PDF(Portfolio Deposit File)' ■ 각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상품별 '구성종목' 항목)